

본 스크립트는 KERIS에서 운영하는 영어스크립트제작봉사단(OES)의 영어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번역자 : 김성수(동아대학교), 박윤진(부경대학교), 장예린(경북대학교), 박수진 (경북대학교)

SDF2014

* 연사: 니코 멜레/ Eric Friedman

* 소속/직함 테크놀로지스트,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 <거대권력의 종말> 저자// Technologist / Faculty, Harvard Kennedy School / Author, The End of Big

* 연설: 급진적 연결 / Radical Connectivity

MC: 네, 서울디지털포럼 2014 '지혜를 여는 열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연설자로 나오실 분은 소수의 거대 권력자보다는 다수의 일반 대중이 작은 소리를 내고 서로 돕는 세상을 꿈꾸는 분입니다

Now you are on 2014 SDF 'Innovative Wisdom'.

We only left the last session.

The last speaker is a person who dreams the future

where the public could speak louder and help each other

rather than being under huge power and authority.

선거의 인터넷 전략을 통해서 당시 무명이었던 버락 오바마를 상원의원으로 올려놓았던 인물입니다. IT 구루이자 하버드 대학과 케네디 스쿨의 교수 니코 멜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He helped Barak Obama through the internet strategy

from an unknown politician to be the Senator.

He is the professor at Harvard Kennedy School and one of the IT guru,

I would like to introduce Nicco Mele! Please welcome him

니코 멜레:

I think the world changed in 1984.

The good nerds in this room will remember
that is the year that Steve Jobs introduced
the first Macintosh Personal Computer.

저는 세상이 1984년에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의 똑똑한 사람들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매킨토시 컴퓨터를 출시했던 년도인 것을 말입니다.

But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In 1984, a man named Chuck Hull invented something called stereo lithography.

Today, we call stereo lithography 3d printing.

하지만 그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84년, Chuck Hull 이란 한 남자는 리소그래피라고 불리는

하나의 물건을 개발해 냅니다.

오늘날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3D 프린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I have a 3d printer,

and about a year ago, it was the first nice, warm spring day in Boston, where I live.

I have two little boys, five and three,

and I wanted them to wear sandals outside.

But I didn't want to put them in the car, and take them to the store, and try on shoes, and buy sandals.

저는 3D 프린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전, 제가 사는 보스턴에 오랜만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날이었죠.

저는 5살과 3살짜리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신고 다닐 수 있는 신발을 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그들을 차에 태우고 가게에 가서, 신발을 신어보게 하고,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It would take all day.

So instead, the night before, I downloaded off the internet the blueprints for some sandals, and I printed them sandals on my 3d printer.

하루 종일 걸리니까요.

그대신, 밤이 되기 전에, 인터넷으로 샌달의 청사진들을 몇 장 다운 받았죠..

그리고 3D프린터로 샌달을 프린터 했습니다.

Sounds awesome, right?

A world where you can just print things at home.

But about three days after I printed the sandals for my boys,

a man in Texas put up the blueprints on how to print a fully functional handgun.

정말 멋지죠?

세상은 이제 집에만 있어도 어떠한 것도 프린트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들을 위해 샌달을 프린트 했던 3일 뒤에,

텍사스의 한 남자가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권총의 청사진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All you have to do is go to the store and buy some nails to put in it.

I think this story perfectly encapsulates the promise, the opportunity,
the amazing abilities that our technology gives us, but also the dangerous, the perils.

권총에 박을 몇 개의 못만 마트에서 산다면 모든 것이 끝날 정도였죠.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요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기술들은 우리에게 미래, 기회,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험과 유해함을 줄 것임을 말입니다.

And when I look at the course and trajectory of our technology,

(00:02:35) I see it pushing power from our big institutions

that have built our modern world to the individual,

pushing power out of all the traditional institutions to individuals at an alarming rate that

we're not entirely prepared for.

그리고 제가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과 궤도를 볼 때

저는 큰 기관들의 압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세상을 개인적으로 바꾸었던 그러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압력들은 급속도로 개인적으로 변하는 전통적인 기관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Across the board, from big newspapers, big political parties, big governments, big armies, even big

fun, we're seeing an erosion of the traditional institutions.

국경을 넘어, 대형 신문사, 대형 정치당, 거대정부, 군대,

심지어 큰 재미를 느끼는 것에 까지

우리는 전통적인 관습과의 충돌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00:03:07) Earlier, you even had the panel about streaming video and the rise of new players like Netflix challenging established institutions. This should be a familiar story in Korea.

심지어 여러분들 역시, 비디오 스트리밍과 Netflix와 같은 기업이 기존의 산업에 진출 하는 것에 대해 게스트를 가졌었죠.

한국에서는 아마 친근한 이야기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lived in Korea in the late 80's, and early 1990's.

And when I was living here then, the idea

that Samsung would one day crush Sony was a crazy notion.

저는 1980년대 말 과 1990년대 초를 한국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살 때 삼성이 언젠가 소니를 무너트릴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하지 못할 생각이었습니다.

About a month ago, our washing machine died, at home,

and my wife and I went to the store to buy a new one.

And there were all these washing machines by old, famous, established American companies

: General Electric, Maytag.

한달 전,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새 것을 사기 위해 가게를 찾았죠.

모든 세탁기들이 오랫동안 유명했던 미국 회사 제품들이었습니다.

: General Electric, Maytag 와 같은 회사의 제품들이었죠.

But the salesman said, “You don’t want one of those, you want one by LG.”

We’ve gone from a world where Samsung has defeated Sony,

and LG is challenging GE, and Hyundai is taking on Ford,

and even pop stars: Psy is bigger than Justin Timberlake.

That is the story of a small nation Korea, the David becoming the Goliath, a global power.

하지만 점원이 그러더군요 “ 마음에 드시는 것이 없으시나 봐요, LG 제품을 찾으시나요?”

저희는 삼성이 소니를 이겼던 세상을 살고 있으며,

LG가 GE에 도전장을 내미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Ford를 상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팝 스타 싸이는 저스틴 팀 버레이크 보다 더 유명세를 띄고 있죠.

그것은 이 작은 나라 다비드와 같은 대한민국이

골리앗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말입니다.

But what of the future? What future does this hold for Korea?

What responsibilities and challenges are there, now that you’re a global power?

하지만 미래에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미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떠한 책임감과, 도전들이 미래에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나요?

Across the board, I see our technology taking power out of institutions.

Out of well-established companies, big armies, big manufacturing, big universities
across the board and pushing it to individuals at an alarming rate.

국경을 넘어, 저는 기술들이 여러가지 오래된 기업들을 사로잡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경 넘어 튼튼한 기관들, 군대, 제조업체, 대학교들은

개인들에게 빠른 속도로 이러한 기술들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It's very hard, sometimes, to figure out how to talk about this.

When I speak in, or when I go to board meetings and corporate board rooms,
or when I listen to meetings in Washington D.C., in Capitol Hill,
and in the White House, and when I think about it,
sometimes even in Harvard faculty meetings, I struggle.

I think, 'The world that I hear everyone else talking about, that's not the world I live in.

때로는 이 것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할 때에도, 또는 제가 이사회를 갈 때나 회사 이사진 방을 갔을 때,

또는 제가 워싱턴 D.C, Capitol Hill, 백악관에 갔을 때에도,

심지어 하버드 교수회 미팅을 갈 때에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 You've heard parts of it today, with things like Bitcoin,
the change in wearable computing, the changing future of technology.

And I try and think about how to talk about this,
and I've reminded of the death of King Edward VII, in 1910.

여러분들은 Bitcoin과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착용 가능한 컴퓨터, 세상을 바꿀 기술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 말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1910년에 킹 에드워드 7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King Edward VII died 1910,
and every nation on the world sent someone to his funeral.
And almost every country in the entire planet was a monarchy or a colony.
There were just three democracies
. And in a generation, the monarchy disappeared.

킹 에드워드 7세는 19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보내었죠.

그 당시 지구의 대부분의 나라는 왕이 통치를 하거나, 식민지였지요.

단 3개의 나라만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났고, 왕정 정치는 사라졌지요.

The new king of England, King George, his first cousins

were the kaiser of Germany and the tsar of Russia.

새로이 왕이 되었던 영국의 조지 왕의 사촌 중에는
독일의 황제도 있었고, 러시아의 황제도 있었습니다.

And they were writing each other letters:

“Just imagine, in 2014, when our grandchildren are the monarchs of Europe and the colonies.”

But it was over already. And that’s sometimes how I feel
when I listen to our leaders today.

그리고 그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 받곤 하였죠.

“ 2014 년을 상상해봐, 우리의 손주들이 유럽과 식민지의 왕이 된 모습을.”

하지만 그런 시절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가끔씩 요즘 리더들에 대하여
들을 때 이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It’s a huge challenge, and we’re not here by accident.

If I was giving this speech thirty-five years ago,
and I was to ask you to describe a computer,
you might describe something like this.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우린 여기까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이 이야기를 35 년전에 했다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것을 생각했을 것 입니다.

A giant machine that would have filled this stage.

A **Cray** supercomputer in the mid 1970’s cost five million dollars, base price.

And it was only available to the world’s biggest institutions.

이 무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기계의 모습 말입니다.

1970 년대 중반 최소 오백만 달러의 가치를 가졌던 Cray의 슈퍼컴퓨터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관들만의 특권이었죠.

The biggest militaries, the biggest governments,
the biggest corporations, the biggest universities.

강한 군대들, 가장 큰 정부들,

가장 큰 회사들, 가장 큰 대학들 말입니다.

And today, you can walk into almost any store,
almost anywhere in the world, and buy a computer infinitely
more powerful than one of these Cray supercomputers for just two hundred dollars
and a low monthly metered fee.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은 아무 가게에 들어가고,

세계의 어떤 곳을 가더라도, 컴퓨터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것은 200 달러의 가치를 가졌지만, Cray의 슈퍼 컴퓨터 보다

훨씬 좋고, 매달 얼마 되지 않는 돈만 내면 되었습니다.

That's as if I were to say to you that thirty-five years from now,
you'll be able to walk into any store anywhere in the world,
and for two hundred bucks and a low monthly fee,
be able to buy a jumbo jet, a Boeing 747.

35 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할 때 쯤이면,

아마 세계 어느 가게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200 달러의 낮은 가격에, 낮은 할부금에

점보 제트기와 보잉 747 기를 살 수 있겠지요.

That would sound crazy.

But that's exactly what has happened.

And that push of power from institutions to individuals is,
in many ways, not an accident.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러한 세상은 다가 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개인에 대한 강요는 여러 방면으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The first computer science program in a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nyone want to guess what year?

It was 1962, and it was not at Stanford, or UC Berkeley,
or MIT, or Harvard. It was at Purdue University, in the middle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학가에서의 처음으로 컴퓨터 공학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1962 년 입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UC 버클리 대학, MIT, 하버드 대학도 아닌,

미국 중부지역의 Purdue 대학에서 처음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But if you were a nerd, if you were someone really interested in computers,
and you were growing up in the sixties and seventies
and you just wanted to study computers,
the only place you could really study computers was on college campuses.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공대생이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사셨고, 컴퓨터를 공부하길 원하셨었다면,

컴퓨터를 공부하기 유일한 장소는 대학 캠퍼스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And what was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sixties on college campuses?

The Civil Rights Movement, the Anti-War Movement.

There was this real feeling among college youth that
you could not trust the people in charge.

여러분들은 60년대 미국대학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민권 운동, 전쟁반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사람들이 세상을 책임지고 있었죠.

That they would draft you and send you to war.

And there was a movement, a movement among nerds to create something that would take computing power outside of institutions, that would invent the personal computer.

여러분들을 강제로 전쟁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대생들이 어떤 것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거대한 기관들의 관심사에는 멀어져 있었고,

그들은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해 내었죠.

It was a radical notion at the time, the idea of a personal computer.

And it was invented because we couldn't trust our leaders in charge.

그 당시의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라는 아이디어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리더들을 믿지 못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In 1973, Ted Nelson wrote this book:

Computer Lib: You can and must understand computers now,

and it influenced a generation of programmers.

1973 년, 테드 넬슨은 하나의 책을 씁니다.

컴퓨터 해방: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 해야 할 것들 이라는 책의 이름인데,

이 것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Bill Gates bought the rights to this book

and republished it in 1984 with Microsoft Press.

Steve Jobs has talked about how he was influenced by this thinking.

빌 게이츠는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을 샀죠.

그리고 1984 년 마이크로소프트 프레스의 이름으로 재발간 되었죠.

스티브 잡스는 이 책이 얼마나 많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 해주었죠.

There was this dramatic move to claim computers for the individual,
for the activist, in order to disrupt the establishment.

개인과 운동가들에게는 컴퓨터의 등장이

기업의 강요를 뿌리치게 만들어줄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죠

And that's how we go from computers that fill the room,
to computers that sit on every desk, to computers
that start to network with each other to share printers
and the H drive, old school style, to computers all connected to each other in the Internet,
to today, we walk around with these enormously powerful devices on our person.

그 시절, 방안을 가득 채웠던 컴퓨터가 있던 시절이 지나,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 있는 세상으로 변화였고,

프린트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H드라이브가 만들어졌죠.

전통 학교의 스타일은 서로가 인터넷이 연결 됨으로써,

많은 것이 변화였고, 오늘날 우리는 각 개인이

이 강력한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I listened all day to people talk about phones.

‘Phone’ is too weak a word for what this device is.

We don't even have the language to describe the kind of power we're talking about.

저는 매일 사람들이 휴대전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들곤 합니다.

‘휴대전화’는 이 장치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우린 우리가 가진 이 강력한 장치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줄 단어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 like to call it ‘radical connectivity’,
because we’re all connected to each other all the time, at enormous speeds,
with enormous power, and without any sense of priority, without any sense of authority.

저는 이것을 ‘급진적 연결성’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빠른 속도로 모두와 연결될 수 있으며,

강한 힘과 함께, 어떠한 우선 우선사항도,

뜻도 없이 그렇게 연결 되기 때문입니다.

This has enormous ramifications for our institutions.

I’m going to give you two examples just to talk briefly about it.

The first is journalism.

이것은 우리의 기관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2 가지 예를 들것인데요, 약간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저널리즘 입니다.

At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here were almost sixty thousand full-time journalists in the United States.

Today, there’s slightly more than twenty thousand.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미국에는 6 만여명의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2 만여명이 조금 넘는 숫자의 기자만이 존재합니다.

That’s an enormous collapse in the number of journalists in the country.

Now, it is due in part to media consolidation,

and publicly traded companies,

and the desire for quarter over quarter profitability,

but it’s also due to the changing media landscape,

and to the challenge of creating digital **revenues**.

미국 내에서 기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미디어들은 합병을 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회사들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가 지날수록, 이익을 더욱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미디어의 환경변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세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As we move away from the analog dollars to the digital pennies,
newspapers are having a harder and harder time making ends meet.

우리가 아날로그식 달러에서 디지털식 화폐로 전환하게 되면서
신문사들은 점점 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here's enormous opportunity in the digital age for journalism.

디지털 시대에는 저널리즘을 위한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습니다

You heard Laura and Chris talk about their amazing work.

아마 로라와 크리스가 그들의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 보셨을 텐데요

But there's also real challenges.

하지만 또한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도 존재합니다

I will not defend newspapers.

저는 신문사들을 옹호하지는 않겠습니다

Their business model doesn't make sense to me in the digital age.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 디지털 시대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But I desperately want and desire, and we need, journalism.

그러나 저는 저널리즘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필요로 합니다

And not just any journalism, but investigative journalism.

단지 아무 저널리즘이 아니라 바로 탐사저널리즘을 말이죠

A core purpose of journalism is to hold power accountable,
to evaluate our leaders and our establishment,
and to figure out if they're doing a good job or not.

저널리즘의 핵심 목적은 합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들의 지도자와 지배층을 평가하며

그들이 일을 잘 해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And if we have fewer and fewer journalists, and smaller and smaller newsrooms,
it gets harder and harder to do that.

하지만 만약 저널리스트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고

보도국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

그것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And something important about the (00:11:44)public sphere gets lost.

그리고 (00:11:44)공론의 장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And there's my favorite subject, politics.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학인데요.

In 2007, Hillary Clinton was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07 년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She had worked on every presidential campaign since she was eighteen years old.

그녀는 18 살 때부터 모든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해왔죠

She knew every Democratic activist in the country,
she knew every major donor of the Democratic Party,
her husband was one of the most popular presidents in American history,
she had been a US senator.

힐러리는 전국의 모든 민주당 활동가를 알고 있었고

민주당의 모든 주요 기부자들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의 남편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통령들 중 한 명이었고

그녀는 미국의 상원의원이기도 했습니다.

If you go to Washington D.C., and you go to the Democratic Party headquarters,
the building actually has her name on it, because she and Bill Clinton built,
They quite literally built, the modern Democratic Party.

만약 여러분이 워싱턴 D.C.에 가게 되어 민주당사를 방문하신다면

그 건물에 실제로 힐러리의 이름이 쓰여진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힐러리와 그녀의 남편, 빌 클린턴이

그것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말 그대로 현대의 민주당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So how did she lose?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선거에서 지게 되었을까요?

How did she lose the nomination to a man who'd been in public life less than a decade?

어떻게 그녀는 공직 생활을 10 년도 채 하지 못한 남자에게 경선을 패하게 되었을까요?

And this is not just the story of the Democratic Party,
this is also a story of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Tea Party,
that the establishment, the powerful establishment,
they get challenged by Internet-fueled insurgents, by Internet-fueled challengers.

그리고 이것은 단지 민주당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공화당과 보스턴 차 사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강력한 지배층이 인터넷에 의해 힘을 얻은 도전자와 반란자에게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Especially if the establishment is not doing a good job.

When the establishment does a poor job,
then peoples turn to the Internet to challenge it.

특히 만약 지배층이 일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도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So, here we are.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곳에 있습니다.

(Time Code: 00:13:09)Technology is pushing power out of institutions to individuals.

기술은 권력을 기관으로부터 개인에게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It is both exciting and creates enormous opportunity.

그것은 아주 흥미로운 동시에 거대한 기회를 창출해내죠

But it also creates a gap.

하지만 그것은 또한 격차를 만드는데요

Our institutions exist for a reason, hence they have very good and important values.

우리의 기관들은 어떤 이유를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가치들을 지닙니다.

And while we may not want to defend the newspaper, we care about integrity and reporting.

그리고 우리가 신문사들을 옹호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청렴함과 보도에 대해 신경을 씁니다.

We care about investigative journalism.

우리는 탐사 저널리즘에도 관심을 가지죠.

How do we bridge that gap?

What are we going to do?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격차를 메워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Well, I think the first thing we can do is we can reimagine our audiences.

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관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In fact, I don't even like the word 'audience.'

You are not an audience.

사실 저는 관중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죠.

You have an enormous amount of power.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can, right now, take out your phone,

and you can go on Twitter or Facebook,
and you can say, “Ugh, that Nicco, he doesn’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
He’s not very good,” “I heard that before,” “I think he’s wrong.”

여러분은 당장이라도 휴대폰을 꺼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웁, 그 니코란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는 별로야”

“그 말 저번에 들어봤는데”

“나는 그가 틀렸다고 생각해” 라고 말이죠.

You can all go on Amazon,
and you can give my book one star without even reading it,
and it will demonstrably hurt the sales of my book.

You can also give it five stars.

That’s okay with me.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존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가 출판한 책을 읽지도 않고 별점 1 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제 책의 판매에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제 책에 5 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You are not the audience.

You are the former audience.

You have enormous power.

여러분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이전에 관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we have to reimagine the people we lead.

We have to rethink our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we lead,
to recognize the enormous power that they have,
and the incredible impact they have on our work, whatever work that is.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들이 가진 엄청난 힘을 인지하고

우리의 일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우리의 일에 주는 믿을 수 없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죠.

The second thing we can do is

we can combine top-down leadership with distributed power.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이하달 방식의 리더십을

분산된 권력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This might be the hardest thing to do.

이것은 아마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The classic example is the Obama campaign.

가장 대표적 사례는 바로 오바마의 캠페인입니다

When Obama ran for president, he had a very normal org chart.

오바마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는 매우 평범한 조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You know, political campaigns have a standard organizational chart.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 선거 운동에는 표준 조직도가 있습니다.

You have the candidate at the top, and the campaign manager,
(Time code: 00:15:10) and all the pieces of it.

맨 위에 후보자가 있고

그 다음이 선거사무장

그리고 그 조직도의 모든 부분이 있죠.

And in a normal political campaign,
you draw a red line at the bottom,
and everything under the red line:
that's a job you give to a volunteer, all the unimportant stuff.

그리고 보통 선거운동에서는

맨 밑에 붉은 선을 긋는데요.

그 선 밑의 모든 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But the Obama campaign took that red line
and moved it way up the org chart.

하지만 오바마의 캠페인은 그 붉은 선을

조직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They gave volunteers real power.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짜 권력을 준 것이죠.

00:15:30

And they were able to do that

by a combination of culture, an expectation of honesty and integrity,
and the use of technology to manage their volunteers
and encouraged their behavior in a certain direction, and evaluated it.

그것은 문화와 정직, 진실함의 합, 지원자를 관리하는 기술과
그들의 행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동기부여와 평가를 통해
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We call it ‘computational management.’

우리는 그것을

‘전산적 관리’라고 부릅니다

And so with a combination of powerful culture,
a clear goal, and computational management,
they managed to push power out **to** a distributed way

그들은 강력한 문화와 명확한 목표,

그리고 전산적 관리, 이 셋을 결합시켜

힘을 분배하려 노력했습니다

to imagine the diffusion of power
that individuals would carry with them,
to enormous effect, in terms of raising money,
and in terms of getting people out to vote.

개인이 이끌 수 있는 힘의 분배와,

거대한 영향력을 기대하였습니다.

기금마련이나, 사람들의 투표를 독려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But I’ll tell you another example,

maybe not as compelling.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그렇게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Just about a year ago,

I was teaching my class

at the Harvard Kennedy school,

약 1년 전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and I had a student running in the Boston marathon,

and he had asked to be excused from class that day.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그날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게 되어

결석을 할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And I finished teaching about one o'clock,

and I pulled up on the website

수업이 끝난 뒤 1시쯤

제 뒤에 있는 스크린을 켜고는

on the screen behind me,

the website for the Boston marathon,

보스턴 마라톤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and I put in his jersey number,

and the whole class could see

that he was making very good time,

웹사이트에 그 학생의 참가번호를 입력한 뒤

전체 반 학생에게

그가 활약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었습니다

and he was going to finish the marathon
at about three o'clock.

그리고 그의 마라톤은 3시쯤 끝날 것으로 보였죠

And I got my lunch after class,

and I went to my office,

and I was sitting in my office,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는데

and then I heard there had been a bomb.

마라톤 행사장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nd I couldn't believe it at first.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But then it became clear

there had been a terrible tragedy

at the finish line.

이 끔찍한 사건은 또한

결승점에서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And I looked at my watch,

and it was three o'clock.

And I was terrified for my student.

시계를 보니 3 시였습니다

그 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두려웠습니다

And I went to Facebook,

and I looked up his profile,

그래서 저는 그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았고

and he had posted at 3:15 one word: 'Okay.'

And I was relieved.

3 시 15 분에 그가 남긴

'괜찮아요' 한 마디에

저는 이내 안심했습니다

And in that moment,

I was so grateful for Facebook,

and for social media,

순간 저는 페이스북과

소셜 미디어에 감사했습니다

and for radical connectivity,

that I could immediately be assured

that my student and my friend was safe.

제 학생이 무사하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게 해준

빠른 연결수단에 고마워했죠

But, over the course of the week,
all these people with all this power and their devices,
they want to do something about this Boston bombing.

한 주가 지나는 동안

이러한 급진적 연결성의

힘과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고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They raise money for the victims,
and they volunteer their homes and guest bedrooms
for people who are stranded and stuck.

사람들은 희생자를 위해 기금을 마련했고

오도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집과 빈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And a group of people online went on a witch hunt
to find the people who did this,
and they identified the wrong person.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범인을 찾기 시작했고

몇몇 용의자를 찾기도 했습니다

비록 틀린 사람이었지만요

And so here was all this energy,
all these people who want to do something,
who desperately want to participate,

여기에는 이 모든 에너지가 있었고

무언가를 하고자 했던,

필사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nd there was no structured way to use their energy,
no way to encourage them
that would lead to a positive outcome.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
딱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You know, Duolingo, this morning,
talked about harnessing people's energy
in order to do translation.

오늘 아침에 듀오링고 측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번역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 것 기억하시죠

There's enormous opportunities and power,
but our institutions must be prepared
to take advantage of it.

엄청난 기회와 힘이 존재하지만,
우리 기관들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And I'll leave you with one last thought.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There are seven companies
that effectively control our online life.

우리의 온라인 생활을 지배하는

회사가 7 개 있죠

You recognize all of them.

Amazon, Apple, eBay, Facebook,

Google, Microsoft with Skype, and Twitter.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아실겁니다

아마존, 애플, 이베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입니다

You could say that never before has
so much public space been privately owned.

인터넷 상의 공개적인 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분명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구요

During the week of the Boston bombing,
Twitter let rumors fly, with all kinds of craziness,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이 있었던 한 주 동안

트위터는 모든 이상한 루머를 날려보냈습니다

and I believe that they have some responsibility
to the civic space, to the public sphere.

이를 보면서 저는 트위터가

공공의 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We must demand greater accountability

from these “New Big”,

우리는 이러한 ‘뉴 빅’이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도록

요구해야만 합니다

so that we can have better social harmonies,

that we can build a better world.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적 화합을 이룰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Our technology has so much opportunity and promise,

but we must not leave some of the hard-won values

over the last three or four hundred years behind.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00~400 년에 걸쳐

힘겹게 손에 넣은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We must find a way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pace and direction of our technology,

and the reality of our institutions and the reason they exist.

우리는 기술의 발전 속도와 방향,

그리고 제도와 제도의 존재 이유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Bridging that gap will not be easy.

It will be, in fact, very hard.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But that, that is up to you.

That is why we are here today.

그렇지만 쉬울지 어려울지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달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는 이유죠

To see the promise and opportunity of this technology,
and to together imagine ways to build a better world.

기술의 장래성과 기회를 보기 위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을

함께 상상하기 위해서 말이죠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00:20:33)

MC: 네, 열정적으로 강연을 해주신 니코 멜레 교수에게 다시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applause for Nicco Mele showing his passion on this stage

Thank you

자, 오늘 서울 디지털 포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연설 준비 되어있는데,

셜록 제작자, 스티븐 모팻이 오셨습니다.

Our all today's sessions are ended.

There are more sessions tomorrow as good as today.

In the middle of that, there is a man named Steven Moffat,

The director of Sherlock

저도 개인적으로 셜록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 했었고,

저희가 모팻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또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두 명의 남자 아나운서가 직접 셜록과 왓슨을

연기하면서 제가 봤을때는 손발이 오그라 들었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ally, I've enjoyed the drama

So, we've made a video for him to show

Two of men announcers acting Sherlock and Watson

I feel a little bit shy to show,

But I expect how you enjoy our video

자리를 빛내주신 연사들의 강연을 통해

혁신적인 지혜를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hope you learnt and felt so much about Innovative Wisdom

Through the sessions

We will show more about it.

Thank you for attending this session

See you tomorrow.

Q&A

MC: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여기 계신 니코 멜레 교수와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교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So, I am going to hand my mike to professor Yoon Youngchul
for discussing more about the topic with Professor Nicco Mele.**

윤영철: 저는 윤영철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못하지만 영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Yoon Youngchul

I am going to talk in english for the smooth process

Please welcome again Professor Nicco Mele.

Have a seat. Professor Nicco Mele,

it was a really powerful and insightful

and persuasive speech you made this afternoon.

니코 멜레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니코 멜레 교수님

정말 영향력 있었고, 통찰력 있었으며,

설득력 있었던 강연이었습니다.

니코 멜레: Thank you.

감사합니다.

윤영철: And, 'The End of Big', the key concept of your speech,

which is also the title of your book,

I think well grasped the essential nature

of political, social, cultural shift led by digital technologies.

그리고 오늘 강연의 주제였던 **The End of Big**은

교수님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 것은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치, 사회, 문화의 변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Also, I was very much impressed to see your position is very balanced.

또한 저는 당신의 관점이 어느 곳에도

치우쳐지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You talk about the positive, bright side of
the new media technology,
but also, you mentioned negative or unexpected outcomes
led by digital media technologies.

당신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밝은 면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었으며,
또한 그것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들을 보여주었죠.

So, I think I agree one hundred percent with what you said this afternoon. But, my role today is to
ask you questions.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제 역할은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니코 멜레: Of course.

물론입니다.

윤영철:

So, for the sake of a clearer and deeper understanding
of what you said this afternoon, let me start our discussion by asking some questions.

자, 오늘 강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recurring themes of your speeches, and also books,
is in the field of political world, in the field of political sectors, the big government,
and big political parties losing their powers.

오늘 강연이나, 책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바로 정치 세계, 그리고 정치적인 부문, 큰 정부,

큰 정치당이 권력을 잃는 부분 인데요

On the other hand, using your words, radically connected individuals
and grassroots organizations gaining more power these days.

다른 한편으로, 당신의 말을 인용하자면, 급진적으로 연결된 개인과

풀뿌리 조직들이 오늘날 힘을 얻고 있는데요

I think this is true, and also, your observation is very compelling
because you have your first-hand experience in the Obama campaign
and the Howard Dean campaign.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관측은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오바마 캠프와 하워드 딘의 캠페인을

경험해 보았으니까요.

But I think there is a reaction coming from big governments.

These days, big governments are more aggressively trying to watch empowered individuals by enhancing their surveillance capabilities.

하지만 저는 큰 정부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큰 정부는 발전된 감시능력을 통해서 더 공격적으로

힘있는 개인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When you have Edward Snowden's case in your country, or a global case, I think.

So, my question is, on the one hand we have individuals enjoying greater freedoms, also, on the other hand, we have still big governments trying to regulate or control the empowered individual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So how would you make a compromise between these two?

미국의 에드워드 스노든의 경우를 보더라도, 또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 개인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큰 정부는 힘있는 개인을 국가방위의 이름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겁니다.

당신은 이 둘의 타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00:02:38)

니코 멜레:

The surveillance of the US government and the NSA is deeply troubling, and it is, I believe, in gros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ill of rights.

It's a troubling, troubling development, and I think it actually exhibits a few things.

미국정부와 NSA의 감시는 상당히 큰 문제이죠.

그리고 이것은 헌법과 권리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문제이고, 몇몇을 대표하는 문제점이지요.

One, it's clear, in many ways, how threatened established power is by radical connectivity.

첫째, 급진적인 연결에 의해 형성된 힘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여러 방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지요.

They feel so threatened that they have to get in there and co-op it, right?

그들은 너무 위협을 느껴서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과 협력합니다.

They have to figure out ways to try and combat that.

그들은 그것을 시도하고 싸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죠.

The second thing is, I think it's very notable that, we had Julian Assange, we had Edward Snowden.

둘째, 저는 우리가 어산지와 스노든의 경우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you know, Edward Snowden was not even a full-time employee, he was a contractor, he was on the job less than three months, and here is this man, who was not even very important in the chain of command, with a thumb drive, wreaks havoc on the national security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에드워드 스노든은 심지어 정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3 개월도 안 되는 계약직이었죠. 그리고 명령체계에서도 중요하지 않았던

그는 썸 드라이브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And so, as much data as they collect, there's a paradox **therein** that they're also enormously vulnerable as an institution.

그래서, 그들이 수집한 많은 데이터만큼,

그들이 기관으로써 아주 연약하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And finally, I think that an important part of the story is the complicity of the big internet companies, of companies like Google and Facebook, in working with the US government to share that data without considering the ramifications for their users, or what it might mean for the public sphere and for the civic good.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큰 인터넷 회사들의 공모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에 대한 영향과 대중의 세력과 시민의 선을 위해서 의미하는 바를 고려하지 않고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정부와 일하는 점에서 말이죠.

윤영철:

Yeah, I think that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is a really important issue these days.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 정보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And another question.

또 다른 질문입니다.

This morning, our keynote speaker, Professor Chon Kilnam talked about ‘Second Billions’, waiting to use Internet.

이번 아침에 기조 연설자 전길남 교수님이 인터넷을 사용하길 기다리는 ‘Second Billions(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In fact, many social scientists studying Internet talk about the benefit of Internet is not equally distributed.

사실, 인터넷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인터넷의 이점이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very empowered, well connected, also, there are people less connected, and also we have a group of unconnected people.

권한이 있고 잘 연결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덜 연결되어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집단도 있다.

I became to know, in Asia, 50% of populations are not connected.

저는 아시아 인구의 절반이 연결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o, we are talking about digital divide, and the gap, the divide is increasing. It’s likely to be increased.

So, what is your solution to reduce that gap, divide?

그래서, 우리는 정보격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신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니코 멜레:

Digital divide is a very serious issue, and I thought this morning’s keynote was

exceptional for the opportunity for leadership
that Korea could take in this way as a global leader in Internet connectivity.

정보격차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의 기초연설이 한국이 인터넷 연결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로써 참여 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기회에 대한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And I think there is also a paradox here that the least connected,
most marginalized populations, in many ways,
have the most to gain from connectivity.**

그리고 저는 여러 방면에서 가장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가장 소외계층이 연결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re was a study about ten years ago in New York City,
where they were looking at high-speed broadband into homes.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집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였던
뉴욕 시에 대한 10 년 전 연구가 있습니다.

And they were trying to understand,
the assumption was that wealthier homes would have high-speed internet.

그리고 그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들의 가설은 더 부유한 집은 더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But they found, in fact, the reverse was true,
that low-income immigrant homes, almost all, had high-speed Internet
because they would use Skype to call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that that was much cheaper than using long-distance phone calls.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이 적은 이주민 가정이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하기 위해

스카이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장거리 통화를 사용하는 것 보다 스카이프가 훨씬 저렴하니까요.

And so, the most marginalized populations,

actually in many ways, have the most to gain from bridging the digital divide.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실제로는

많은 방면에서 디지털 분열을 다리 놓아주는 것으로부터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And I hope that's an engine for growth, that that's an opportunity

that people use to try and close the divide.

그리고 저는 그것이 성장을 위한 엔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It's, in many ways, most challenging for rural populations,

for populations not in urban centers.

여러 방면에서 도시에 살지 않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일이죠.

윤영철:

Okay, as a journalism scholar, I have to ask a question about the crisis in journalism.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 학자로서 언론계의 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In your speech, you briefly talked about the crisis in journalism.

당신의 연설에서, 당신은 간략하게 언론계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These days, conventional news media losing their readers, viewers, and listeners,
on the other hand, more and more people getting news
from all different kinds of Internet sites and social media.

So we have plenty of information.

요즘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는 독자, 시청자, 청취자를 잃고 있는

반면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로부터 뉴스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I'm not sure whether you have to call that news or news-like information,
but there are many, many information and viewpoints.

저는 당신이 그러한 것들을 뉴스 혹은 뉴스 같은 정보라고

불러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와 관점들이 있습니다.

The problem is, as you mentioned,
there are false rumors and false statements and personal attacks.
Those kinds of things can lower the quality of journalism.

문제는, 니코씨께서 언급했듯이

가짜 소문과 허위 진술, 인신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언론의 질을 낮추죠.

So, what is your ‘innovative wisdom’
in solving that kind of tension or problems?

그래서, 저러한 종류의 긴장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혁신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니코 멜레:

It’s a serious challenge.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I think that I like to look to history sometime for answers here.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가끔은 역사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d you know, the history of newspapers is that,
for many years, newspapers would engage in these kind of attacks as well,
and it took about seventy-five years for newspapers,
and as an industry, to develop ethics, and norms,
and established ways of doing things; to establish the ombudsman,
and norms about sourcing, and having multiple sources to verify material.
영철씨도 알다시피, 신문의 역사는 수년간 신문들도 이러한 문제와 연관이 있었으며,
하나의 산업으로서 신문과 언론사들이 윤리, 기준, 규범을 정립하는데
약 75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옴부즈맨제도와 출처와 증거들을 입증할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말이죠.

And so, I think, in many ways, the digital world is just in a very early stage

and I hope that, over time, we'll develop those norms.

그래서 저는 많은 방면에서 디지털 시대는 아주 초기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그러한 기준들을 정립할 것을 희망합니다.

But at the same time, we need, socially,
to create a greater expectation of accountability,
both from each other online, but also from the institutions,
the “New Big,” like the seven Internet companies I spoke about.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책임에 있어서

더 큰 기대를 형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말이죠.

제가 얘기했던 7 개의 인터넷 회사와 같은 “New Big”을 형성해야합니다.

윤영철:

We need to develop very efficient ways verifying facts in the Internet space.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And in the field of political campaigns,
you also mentioned a kind of crowdsourcing tactic in the political campaigns.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에 있어서,

당신은 또한 일종의 크라우드소싱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So I'm just wondering,
how can that kind of crowdsourcing model apply to journalism,
especially the online journalism these days? Can you give us some examples?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크라우드소싱이 언론에 적용되는지요?.

특히 요즘과 같은 온라인 언론에 말이죠.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니코 멜레:

Sure. Well, if we think about journalism as having three pillars, right?

The production of news, the distribution of news,
and the business model, the revenue of news.

물론이죠. 우리가 저널리즘을 세 개의 기둥을 가진다고 생각해보면 말이죠,
뉴스 제작, 뉴스 배급,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인 뉴스의 수입이 있습니다.

Across all three, you know, when we talk about them
as the former audience, that's crowdsourcing.

전(前)구독자로서, 이 세가지를 통틀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크라우드소싱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Laura and Chris, they think about their news
as, in part, about community engagement.

로라와 크리스는 그들의 뉴스를 부분적으로
지역사회로의 참여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 the production of news, we can look at crowdsourcing
and the former audience as allies.

뉴스 제작에 있어서, 우리는 크라우드소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前구독자로서의 동맹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죠.

Journalists can use their audience to help them do research.

저널리스트들은 구독자를 그들이 조사하는 것을 돕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leader in this has been The Guardian.

이 전략의 리더는 The Guardian이었습니다.

One of the most famous examples is the British Parliament released a couple million pages of expense reports from the members of parliament, and The Guardian put scanned all of them, put them online, and asked their readers, the former audience, to help them find any expense reports that look like it might be fraud or abuse.

가장 유명한 예들 중에 하나는 영국의회가

의회 회원들로부터 수백만 페이지의 예산보고서를 내놓았을 때였습니다.

The Guardian은 모든 것을 복사하여서, 온라인에 올렸고

구독자, 前구독자들에게 사기나 남용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nd then, after there was sufficient-

there was a process they gave to crowdsource participation integrity, and then they used that to do further investigations and to write stories.

그것이 충분히 된 이후에는

클라우드소스 참가자에게 진실성을 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사용했죠.

The Guardian also did this with WikiLeaks material as well.

가디언은 이러한 과정을 위키리스크 자료를 가지고도 했습니다.

I think, in the distribution of news, using social networks
to help spread news, to help with social sharing,
it's an important part of that.

뉴스 배급에 있어서, 저는 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돕고,

사회전체에 정보 공유를 돕는 것에 소셜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And even in the business model of news,
the former audience is a crucial partner in developing new revenue models.

그리고 뉴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새로운 수입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前구독자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윤영철:

I think there are many interesting experiments going on in this field.

저는 이 분야에 많은 흥미로운 실험들이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코 멜레:

It's an exciting time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Time Code: 00:10:44)

윤영철:

Yeah. Today, you repeatedly mention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of the engag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or importance of the local communities.

네 오늘 니코 멜레씨께서 공동체와

공동체적 활동 참여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셨는데요

It is quite understandable

because people can easily create online communities in cyberspace.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봤을 때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But one of the problems pointed out by many critical scholars

is that people tend to meet or see like-minded people,

or read or see what they would like to see or read.

하지만 많은 비판적인 학자들이 지적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고 보거나

혹은 그들이 보거나 읽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읽고 싶어한다는 것인데요

So, in the afternoon sessions, many Korean boys and girls,

they didn't even recognize Sistar's 효린 in the subway
because all they are doing is just focusing on what they'd like to read
and what they'd like to see.

그래서 오후 세션에서는 심지어 많은 한국 아이들이
그들이 읽고 싶거나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을 하느라
지하철에서 시스타의 효린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So we don't have any unexpected encounters these days.

그래서 요즘 우리는 뜻밖의 만남을 가질 일이 잘 없죠

That is related with the lack of media diversity.

이것은 또한 미디어 다양성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People tend to have a very narrow range of diverse information or diverse opinions.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나 의견을 매우 좁은 범위로 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That is not good for the healthy operation of a democracy.

이것은 민주주의 건강한 운용을 위해 별로 좋지 않습니다

So what will be your solution or views about that issue?

그렇다면 니코멜레씨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이나 관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니코 멜레:

There's a lot of academic research,

and we really know that diversity is a crucial part of innovation,

diversity is a crucial part of problem solving,

and diversity is a crucial part of a healthy democracy.

사실 이에 대한 많은 학문적 연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성이 혁신의 주요한 부분이고

다양성이 문제해결에 핵심적이며

다양성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And our technology can be designed to keep us inside of our own bubbles,

to keep us inside of a filter bubble, to keep us inside of a daily me,

you know, there can be a confirmation bias embedded in our technology.

그리고 우리의 기술은

우리가 우리만의 틀에 갇혀 살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걸러진 정보만이 존재하는 틀 안에서

일상적인 나에만 갇혀 살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이 우리의 기술에 심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00:12:28)

And one thing we can do is, we can, again, demand of the companies

that provide us this technology that they value diversity

as an important part of the user experience.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가지는

바로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에

사용자 경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것입니다

Another exciting development is the way
our technology encourages us to meet offline.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오프라인상으로 만나는 것을

도모하는 방식에 있는데요

One of the number one uses of Facebook is
actually to plan events,
that are face-to-face events.

친구와 언제 만날지

페이스북으로 약속 잡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And if we spend time with our neighbors,
if we get to know our physical communities,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며

실질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I think that creates a lot of positive
feedback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향한

긍정적이면서도 수많은

상호작용이 생겨날 것입니다

윤영철:

Very interesting observations and examples
you introduced this afternoon.

굉장히 흥미로운 견해네요

With your remarks,
I have to wrap up this session.

이것을 끝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we'll be much better prepared
if we really understand what you said this afternoon

우리가 오늘 강연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or if we read your book *The End of Big*.

I think it's a very important book for us to read.

니코멜레씨의 저서

<거대권력의 종말>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합니다

By the way, he's going to have a book-signing event
right after this session.

Please join the book-signing event.

본 강연이 끝난 뒤

니코멜레씨의 저자 사인회가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I'd like to thank all of you who attended
this last session of today's conference.

오늘 강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lso, my special thanks goes to the professor Nicco Mele,
who did a wonderful job. Thank you very much.

더불어 오늘 뜻 깊은 연설 해 주신

니코멜레씨께도 감사드립니다

니코 멜레:

Thank you